

2021년 7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국명 : 주식회사 연합뉴스티브이

1. 회의개최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수		비 고
		위 원	방송국	
7. 27. 15시	화상회의	10명/10명	2명	

- 시청자위원 불참자(0명) 명단
- 방송사 주요참석자 명단 : 이정내(시청자센터장)
성기홍(보도국장)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시정요구) 및 시청자권익보호 등의 논의 안건(건수)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시청자권익 보호 (침해구제)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	9	-	-	1	10	-	-	10

나. 사업자 반영(건수)

구 분	수 용	의견참고	반 론	합계
건 수	10	-	-	10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 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 월
계	2건	2건	
보도	<p>불법 촬영 피해 학교 정보노출로 인한 2차 피해 발생 주의, 지난 5월 15일 [단독] 교사가 학교 여자화장실 몰카... 직위해제.수사 기사에 학교 정문 사진이 함께 게재되어 졸업생, 학부모, 학생 등이 피해학교에 대해 알게 되고 인터넷에 실제 학교이름이 거론되어, 학교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피해만으로도 힘든 상황에서 계속 수업을 진행해야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주변 지인들로부터 '네가 다니는 학교 맞냐'는 연락을 받아야했습니다. 학생들의 동요도 큼니다. 성범죄 관련 사건 기사 작성 시,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특히 피해자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 수 있는 정보가 실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야할 것입니다.(이현숙 위원)</p>	<p>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 편집 등에서 현실적으로 완벽하게 노출을 방지하기는 쉽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 문제제기 하신 기사는 내렸습니다.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7월 조치></p>	'21.6월
보도	<p>중국 출산 허용과 우리나라의 상황, 중국의 출산허용정책을 [단신 → 특파원 취재] 순으로 보도하여 중국의 인구문제가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일련의 보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5.31저녁: 앵커 단신) 우리나라의 경우 저출산 고령화가 어느 나라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전문가들도 '인구절벽'을 크게 우려하는 상황이고 국가 발전에 가장 큰 위험요소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가능하다면 빠른 시기에 [우리나라 인구절벽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루어주면 좋겠습니다.(문해주위원)</p>	<p>국내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탐사보도 프로그램인 뉴스프리즘과 스페셜을 통해 원인과 사회적 문제점, 전문가를 통해 해법 등을 다룬 바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1월과 3월 <인구절벽 비상, 백약이 무효인가>, <끝모를 출산율 추락...현실로 다가온 인구절벽>등을 주제로 뉴스프리즘에서 나름 깊이있게 특집을 다뤘습니다. 그럼에도 지적하신대로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국가적 재난인 동시에 반드시 해결해야할 큰 숙제입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사안을 다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7월 조치></p>	'21.6월

라. 시청자 권익보호 및 침해구제 '해당사항 없음'

안 건 내 용	조치(개선)내용	비고
-	-	

3.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관련 공개 청구 '해당사항 없음'

요청자(단체)	공개내용	공개방법

나. 상시의견수렴 실적 '해당사항 없음'

상시의견수렴방법	내용

당월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에 대한 답변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보도	<p>TV뉴스에서 영상은 가장 중요한 언어이다. 특히 영상이 촬영된 시점은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이다. 뉴스에서 현실적인 이유로 자료화면을 많이 쓰고 있다. 그러나 자료화면을 사용하면서 '자료화면'이라는 자막을 내보내는 경우가 거의 없다. 패널들의 좌담이 아닌 적어도 실시간 뉴스에서는 새로운 영상화면이 아닐 경우에 '자료화면'이라는 자막을 내보내는 것이 뉴스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일 것이다.(권혁남위원장)</p>	<p>TV뉴스에서 자료화면의 사용은 관련된 자료가 있을 경우 사용하며 시청자가 왜곡, 오인할 소지가 있는 자료화면은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사용 시 현재 시점에 촬영한 영상으로 시청자가 착각할 수 있는 영상은 '자료화면' 자막을 화면상에 노출해 영상의 사실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p>	○		
보도	<p>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신규택지 공공주택에 대한 사전청약 일정이 시작되었으나 일각에서 일고 있는 분양가 논란에 대한 보도로 김대호경제학 박사의 인터뷰에서 시청자의 눈높이에 맞춘 용어선택과 알기 쉬운 설명이 좋았으며 이와 함께 사전청약대상지, 1차 공급지구, 공급 일정 등 화면 영상 그래픽구성이 이해하기 쉽게 제작되어 양질의 보도로 돋보였습니다. 또한, 앵커의 핵심적인 질문으로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답변을 충분히 들을 수 있었고 특히, 금번 공급계획이 신혼부부를 위한 특공(특별공급)이 많고 그에 대한 자격요건,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 내 집 마련을 계획하거나 준비중에 있는 젊은층에게 매우 좋은 정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투기 라면값 인상 계획에 따른 서민 경제에 미치는 부담을 전망하는 보도와 관련하여 앵커의 시청자 호기심을 이끌어 내기 위한 멘트(대표적인 서민 음식은? 하나 둘 셋 라면)와 차분하면서 센스 있는 진행으로 시청하는 동안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다만, 2. 4 공급대책에서도 시장에서의 다양한 문제점들이 지</p>	<p>2.4 공급대책에서 공급 예정지로 발표된 지역 중 상당지역이 주민과 지자체의 반발(과천,태릉,수색 등)로 진행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이들 지역의 진행 현황에 대해 이미 다룬 바 있지만 이들 지역의 성패가 전체 대책의 성공을 좌우할 부분인 만큼, 진행상황이 나오는대로 추가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기 신도시 분양가의 경우, 비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인근 주택가격과 이미 오른 지가로 수용을 해야 하는 만큼, 일부의 기대만큼, 낮게 분양가를 잡기 어렵고, 매우 낮게 책정될 경우, 또다른 '로또분양'을 조장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보도에 신중을 기하고 있으나 사전청약이 시작된 만큼, 분양가의 적절성을 3기 신도시 전체와 함께 다뤄볼 예정에 있습니다.</p>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적되었으나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심층적인 보도가 부족하여 아쉬웠습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고분양가 논란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좀 더 깊이 있는 의견, 이전 사전청약 지구의 현황 및 문제점 등 다양한 관점에 대한 입체적이고 균형 잡힌 보도가 추가적으로 이루어 지기를 바랍니다.(박찬재부위원장)				
보도	소부장 2년의 성과에 대해 우리나라와 일본의 시각(통계)이 다르고, 국내 일부 언론에서도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의 성과라기보다 그 이전 오랜 기간 동안 쌓아온 기술력의 결과일 것이라고 하면서 정부와는 다른 분석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번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 일본 방문과 스가 총리와의 첫 대면 정상회담이 무산된 것도 과거 사 문제나 수출규제 등 현안 해결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부장 문제는 우리 국민과 정부, 기업인들이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할 현안 과제이기 때문에 탐사보도 뉴스프리즘이나 연합 뉴스tv 스페셜 등 프로그램을 통해 집중 진단(필요시 연재)하면 정부나 기업, 연구기관 등 이해 관계자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문해주위원)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더욱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하고 보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보도	7/4 18:00 전문가(감염내과 교수)와 함께 대담하였는데, 알기 쉽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여서 좋았습니다. 특히 델타 변이 및 델타 플러스 바이러스에 대한 간략하면서도 자세한 설명이 알기 좋았고, 그 전파력(감염재생산지수가 5~8)에 대한 설명으로 그 심각성을 일깨워주는 부분이 더욱 더 좋았습니다. 나날히 보다 심층적으로 접근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정	코로나 대담이 매일 두차례 고정적으로 배치돼있는 만큼 매일 새로운 이슈를 그래픽 등 시각적 효과를 곁들여 충실히 설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청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방역수칙 계도를 할 수 있도록 더욱 신경쓰겠습니다.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의식위원)				
보도	[뉴스프리즘] '영혼의 살인' 아동 학대...실태와 대책은, 아동학대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룬 점은 좋았으나 씬터로 오는 피해 아동이 적은 이유가 자녀에 대한 소유 개념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을 실었는데 그 보다는 뒤에 아동복지법이 갖고 있는 문제와 피해아동을 보호하기에 역부족인 씬터의 상황, 가정 복귀 후 가족기능 회복을 위한 지원과 아동학대 모니터링 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좀 더 다루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이현숙위원)	아동학대는 여전히 끊이지 않는 문제인 만큼 추후 보도할 때 관련 문제들을 주의 깊게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보도	탄소중립 위한 실천 방안 지속적 방송 필요, 지난 6.27 방영된 연합뉴스TV 스페셜의 "탄소중립 : 숲에서 찾는 해법"은 탄소중립과 구체적 방안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익, 탄소중립은 최근 국제적 이슈가 되고 있고 이는 환경적 측면 뿐만 아니라 산업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음,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GDP대비 제조업 비중이 27.8%로 독일 21.6%, 일본 20.8%, 미국 11.6%, 영국 9.6%에 비해 최대 3배 이상 높아 산업구조상 탄소배출을 급격하게 줄이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 산업계도 탄소중립을 위해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노력해야 하겠지만 산업구조 특징상 급격한 감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탄소흡수 및 저장을 통한 감축도 매우 현실적이고 중요한 과제라 볼 수있음, 이러한 점에서 연합뉴스TV 스페셜의 "탄소중립 : 숲에서 찾는 해법"은 현실적인 방안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익한 프로그램이었음,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시리즈로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방송했으면 좋겠음, 탄소중립 문제는 산업계	탄소중립(NET-Zero) 관련 주제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프로그램 제작에 반영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8월 8일(일) 방송되는 <연합뉴스TV 스페셜>에서는"탄소중립(NET-Zero) 시대, 수소사회로의 전환"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국내 수소산업 현황을 전반적으로 다룬 바 있으며, 추후에도 관련된 내용들을 적극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제작하겠습니다.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의 책임도 크지만 우리의 일상생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일상생활에서의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 등도 방송을 통해 알려줄 필요, 나아가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탄소포집 기술 및 정책적 지원제도 등 지속적으로 방송할 필요가 있어 보임(유환익위원)				
보도	<p>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이 사회의 첫발의 내딛기도 전에 실업자가 되거나 원하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자발적 실업자가 되는 것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회적 화두인 청년일자리 문제와 그 해법에 대한 보도를 확대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7월21일 "자영업자 은행대출 코로나1년반새 67조원 급증"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6월말 현재 은행권의 기업대출잔액이 1천 22조1천억원으로 코로나 발생이전인 2019년 12월말보다 153조 1천억원이 늘었고, 이 중 중소기업 대출은 132조 3천억원(18.5%),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대출은 66조 9천억원(19.8%) 늘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경제는 글로벌 경기회복과 함께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6월말까지 8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하고, 제조업 가동률과 소비심리도 코로나 이전수준을 회복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민 백신접종만 확대되면 소상공인 매출도 정상을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이었습니다.</p> <p>하지만 6월말부터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되면서 거리두기가 역대최고로 강화되면서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급락하고, 유동성 위기가 재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코로나19가 1년 6개월 넘게 장기화되면서 빚으로 버티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특히, 9월말이면 금융당국인 지난해 4월부터 3차례에</p>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현장실태와 신용상황에 대한 경각심 부여를 위한 보도를 확대해 달라는 위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분들의 어려움을 대변하기 위한 보도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좀더 적극적으로 관련 아이টে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p>걸쳐 연장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은행 대출 원리금 만기연장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현장실태와 신용상황에 대한 경각심 부여를 위한 보도를 확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추문갑위원)</p>				
<p>보도</p>	<p>지난 4월 평가에서도 평가한 바 있지만, 매일 오전 9시경에 방송되는 '박진형의 출근길 인터뷰' 코너에서 문화예술 관련 이슈에 대한 내용이 자주 다루어져서 매우 반갑다. 이달에도 문화관련 부문의 인터뷰가 4회 방송되어 해당전문가와 심층적인 인터뷰를 통해 다양한 행사의 기획의도와 목적 등을 잘 알 수 있었다. 특히 '출근길 인터뷰' 「국보와 현대미술이 한자리에 '한국미술, 어제와 오늘」(7월 16일 보도) 에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가 출연하여 기획전시회에 대한 배경과 의미 등을 설명하여 「한국미의 뿌리를 찾아서...문화재와 현대미술의 만남」(7월 16일 보도) 기획취재와 잘 어우러져서 마치 콜라보레이션 같은 효과를 거두었다. 위와 같은 협업을 보다 많이 시도하여 문화예술 보도부문의 부족한 조직과 인력을 해소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정경모위원)</p>	<p>'박진형의 출근길 인터뷰'는 전문가에게 핫이슈에 대한 핵심을 들어본다는 목표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특히 문화 예술계와 관련한 주제는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직접 관람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시청자에게 생생한 문화 예술 전시회를 조금이나마 보여준다는 것과 문화 예술계가 어려운 여건에서도 훌륭한 기획과 전시를 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더 좋은 주제와 전문가를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p>	○		
<p>기타</p>	<p>연합뉴스TV 홈페이지(PC)나 휴대전화 앱에서 '김경수'를 검색하면 관련 기사가 하나도 검색이 안 되었습니다. 너무 이상해서 포털에서 '연합뉴스TV 김경수'를 검색해보니 <김경수 '댓글 조작' 유죄...대법, 징역 2년 확정> <'공모 없다' 주장했지만...'댓글조작 목인' 인정> 2개 정도 기사가 검색됐습니다. 기사 검색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연합뉴스TV 홈페이지(PC)나 휴대전화 앱에서 '김경수'를</p>	<p>홈페이지 개선 계획으로 검색엔진 검색품질 개선을 위한 제반작업이 진행중이었습니다. 7월 초 비정상적 검색어의 다량 유입 등으로 속도 저하 등 검색엔진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장애 원인을 원천 차단하고 검색품질 개선 작업을 동시에 했습니다. 주요 작업 내용은 검색색인 방식 변경, 최신 기사 색인 반영 시간 축소, 검색어 유입 필터링, 검색결과 최신 정보 순나열 로직 변경 등입니다. 이 작업은 7월 말~8월 초 1주일간</p>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p>검색하면 위 기사들은 검색이 아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기사를 쓴 기자의 이름으로 검색을 해도 해당 기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또 하나의 문제는 연합뉴스TV 홈페이지나 휴대전화 앱에서 '김경수'를 포털 사이트(네이버)에서 검색하면 최신 기사 혹은 중요 기사가 상단에 뜨지 않고, 어떤 순서로 배치됐는지 기준을 알 수 없는 순서대로 배열이 돼 있었습니다.한정된 뉴스 시간에 한 가지 이슈에 대해 여러 꼭지의 기사를 보도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감안한다 해도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는 대형 이슈에 대해서는 기사 수를 좀 더 늘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독자들이 홈페이지에서 최신 핫이슈를 검색하는데 전혀 연관성이 없는 기사가 검색되거나, 작년 기사가 상단에 검색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스템 개선을 건의합니다.(김세한위원)</p>	<p>진행했고 현재 개선을 완료했습니다.</p>			
<p>보도</p>	<p>7월 21자 오전 4시 뉴스, [단독] 훔친 차 문 10대들... 한밤중 10대 남학생들이 무면허로 차를 몰고 다니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는 단독뉴스가 방송되었습니다. 요즘 10대 아이들은 게임을 통해서 운전을 배운다고 합니다. 이날 붙잡힌 아이들은 절도와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입건을 한다고 나왔습니다. 호기심이 왕성한 10대 아이들을 위해 정확한 처벌 수위를 알려주었으면 합니다. 무분별한 미디어 때문에 가면 갈수록 아이들의 죄의식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착잡하기만 합니다.(천경숙위원)</p>	<p>비슷한 사례들을 보도할 때 이런 행위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된다는 내용을 넣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p>	<p>○</p>		